

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 3월12일 개최

특허청이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디자인 정보시스템구축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디자인 맵은 특허청이 보유한 680여만건의 방대한 디자인 정보를 분석·가공해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분석 도구를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디자인 이미지 정보는 물론, 디자인 권리 및 분쟁정보, 트렌드 정보 등도 서비스된다.

2008년에는 18개 물품에 대한 디자인맵 작성과 22개 물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회를 3월12일 10시 국제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디자인 맵 구축사업은 2006년 2개 물품에 대해 시범실시를 했으며, 2007년에는 20개 물품에 대한 맵 작성과 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과 2007년 2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맵 작성분은 CD 및 책자로서 관계기관에 배포됐으며, 2008년 맵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2008년 구축되는 18개 품목과 함께 총 40개 물품에 대한 온라인 시범 실시를 하게 되고 2010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8년 구축될 물품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등 IT물품과 의자, 반지 등 국내외 다출원·다분쟁 물품 및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은 18개 품목이 선정됐다.

디자인 맵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실시한 세계 최초의 종합디자인정보 시스템으로 물품별·용도별로 프로그램화했다.

시스템을 통해 디자이너와 기업은 정확하고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 받아 디자인 선행조사 기간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원인과 변리업계에서도 디자인 출원 및 분쟁예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디자인산업 전반적으로 효용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3/10>